



심층 인터뷰 : 유럽 종교개혁의 종결자, 존 칼빈



지금 이 시간에는 유럽의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장로교회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되는, 존 칼빈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Q. 칼빈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어떤 계기로 종교개혁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저도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저는, 14세 때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을 공부했지요. 그렇게 인문학자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 마음을 돌리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던 새로운 흐름이 있었거든요. 바로 독일의 루터 선생님이 시작하신 '종교개혁'이었어요. 아! 참고로 루터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25살이나 더 많으십니다. 제가 한참 후배인 셈이지요(웃음). 제가 종교개혁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저는 곧바로 새로운 길을 달려가려는 열정에 불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Q. 선생님의 저서 중 「기독교강요」(1536)라는 명저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을 담은 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A. 명저라니 부끄럽군요(웃음). 당시 프랑스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들을 향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들을 교황과 교회에 도전하는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가 결코 위험하거나 거짓되지 않다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 책을 썼지요. 또한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그 작업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기독교강요」예요. 이 책을 통해 저는 루터 선생님이 버금가는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답니다.

Q.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A. 「기독교강요」 초판이 나오던 1536년에, 저는 친구였던 기욤 파렐(1489-1565)을 만나러 스위스의 제네바에 갔어요. 그곳에서 파렐의 권유로 제네바 종교개혁에 참여했지요. 저는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찮은 문제를 들추며 저와 파렐을 방해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Q.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저라면 이겨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후 종교개혁을 이루시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렇게 제네바를 떠나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교회를 섬겼어요. 또한 「기독교강요」의 내용을 보완해 출판하고, 「로마서 주석」을 비롯해 왕성하게 집필 활동을 했지요. 그러던 중 1540년에 제네바에서 다시 저를 불러 주었어요. 그래서 1541년부터 저는 제네바에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혁을 이뤄 낼 수 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정신을 마음에 새겼기에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이 과정에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감독(bishop)과 장로(elder)의 제도를 교회 안에 다시 확립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따라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장로교회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니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생님의 열정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해 봐요! 내 삶에서 개혁해야 할 것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습 속에서 개혁해야 할 것을 실천 계획으로 정리해요!

- ☐ 종종 주일예배에 지각하거나 결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 ☐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하고 있나요?
- ☐ 하나님께 드릴 예물(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 ☐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노력하고 있나요?
- ☐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 ☐ 하루 중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나요?
- ☐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나요?
- ☐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나요?
- ☐ 다른 친구의 잘못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나요?
- ☐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고 있나요?

삶의 개혁 실천 계획

1.

2.

3.

